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 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Family Strength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구현주*, 문혁준**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Hyun-Joo Koo(lukas1225@naver.com)*, Hyuk-Jun Moon(mhyukj@catholic.ac.kr)**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85명을 설문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서, 대학생의 성별, 학년, 출생 순위와 형제 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심리적 통제와 가족건강성은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요인 별로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모두, 즉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편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모의 심리적 통제는 갈등관리에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은 관계형성 및 개시와 적절한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의사소통능력 | 모의 심리적 통제 | 가족건강성 | 대인관계 유능성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family strengths on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subjects of 285 college students who were enrolled in Gyeonggi province were surveyed for data collection.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control variables. Main results of the study, with college students' gender, grade, birth order and number of siblings controlled, are as follows: Communicative competen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interpersonal competence, while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family strength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overall interpersonal competence. Next, the results of the study for each sub-factor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are as follows: Communicative competence was found to be a variable that influence all the sub-variables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cluding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claiming for rights or discomfort, consideration for others, conflict management, and appropriate self-opening.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has a negative effect only on conflict management, and family strengths has an effect on relationship formation and initiation, and appropriate self-opening.

■ keyword : | Communicative Competence |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 Family Strengths | Interpersonal Competence |

I. 서론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의 범위가 확장되고 삶에서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1].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시절까지는 학급단위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고 전반적인 생활을 대학입시라는 과제에 몰두함으로써 단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면서 대인관계의 폭이 급격히 넓어지고 갑자기 변화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2][3].

실제로 2016년 대학 내일 연구소[4]에서 대한민국 20대 남녀 643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조사한 실태자료에서 4명 중 1명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태를 볼 때, 이 시대의 20대들은 인간관계의 유지·관리에 피로감과 회의감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되어 대인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대인관계는 자율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선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5]. 대학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선후배, 동료 등 다양한 관계 구조 내에서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형성 및 유지라고 할 수 있다[6].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성격, 가치, 이념, 관심사, 취미, 졸업 후 진로 등 다양한 기준에 기반을 둔 친구관계로 변화되어 대인관계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지만[7], 그러한 상황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성숙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심각한 부적응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8]. 대인관계가 원만하면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해지는 반면, 폭넓고 깊은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우울, 불안, 외로움, 분노와 같은 심리사회적 어려움의 주원인이 되고 개인의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9].

이처럼 대학생활의 바람직한 대인관계가 형성된 경

험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사회적 적응과 건전한 인격 발달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지 못한 대인관계 경험은 불안한 정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학생활 동안 대인관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10].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대학생은 대인관계의 문제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회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대학생 시기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형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영위할 때 자신을 더욱 가치 있게 보게 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대인관계가 점차 넓어지는 대학생들에게 대인관계 유능성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11].

Spitzberg와 Cupach[12]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효과적으로 맺을 수 있고 효과적으로 형성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을 대인관계 유능성이라고 하였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를 효과성과 적절성이라고 하였다. 효과성이란 대인관계를 통하여 통제력을 획득하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하여 긍정적 정서를 얻게 하는 효과가 있으며, 적절성이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규범, 규칙, 기대 등을 위배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Buhrmester와 그의 동료들은[13]는 대인관계 유능성은 관계 형성 및 개시 능력, 권리나 불쾌감을 주장하는 능력, 개인적인 정보를 개방하는 능력, 다른 사람을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능력,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대인관계의 중요성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정신적 안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갈등을 건강하고 기능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갖춰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4]. 한나리[15]에 의하면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은 사람은 협력적인 자세와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대처 행동을 선택하는 반면,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은 사람은 갈등에 미숙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Laspley와 Edgerton[16]은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계되는 주요 요인으로 개인적 요인과 부모-자녀 관계 요

인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요인과 가족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사람과 형성된 관계를 잘 유지하는 능력인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타인과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촉진시키며, 관계 형성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17][18]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유능성에 관한 개인내적 요인인 의사소통은 관계형성의 주요수단이며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관계 형성의 지속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19] 자신의 정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20]. 다시 말해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으로 관계를 형성시킬 수 있으며,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거나 의사소통능력이 좋은 사람일수록 대인관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한 관계를 맺거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이룩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21]. 또한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타인과 효과적으로 협동해 나가 상황이나 환경이 변할 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22]. Wilson과 Sabee[23]에 의하면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은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으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소통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적 요인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가족건강성을 살펴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영구적인 사회적 관계로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 자아와 타인에 대한 지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25], 정서적, 사회적, 성격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6].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지지와 부모의 통제 두 범주로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27]. 부모의 지지는 애정, 돌봄, 수용, 반응적 행동, 애착 등의 자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모의 통제는 행동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로 세분화되며 강압, 유도, 죄책감 유발, 지도, 관찰, 애정철회, 성숙

함의 요구 등 복잡하고 다양한 구성요소를 지니며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상을 모두 나타낸다[28].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나 욕구에 반응하지 않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회적인 압박으로 과도한 참견, 수치심 유발이나 죄책감 유도, 애정철회, 무시하기 등과 같이 자녀의 사고, 감정 등의 심리적 영역을 통제하려는 부모의 양육행동이다[29]. 자녀가 독립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보호와 간섭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의 의도에 따라 자녀를 통제[30]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부모에 대한 믿음, 태도, 가치를 자신의 것과 구분하는 역량이 부족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유발하여 대인관계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31]. 이와 같이 부모의 심리적 통제로 자녀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고 대인관계에서도 통제적이고 의도적이거나 반대로 지나친 친밀감을 나타내어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킨다[32]. 대학생 시기에 타인들과의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진정한 독립성 확보와 친밀성을 유지하는 균형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33].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하지 않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하나로 본 연구[27][32]가 대부분이다. 부의 심리적 통제와 모의 심리적 통제를 구분한 연구[31][34][35]에서는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가 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을 고려하여 모의 심리적 통제를 심층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한다.

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기대하며 통제하는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성인 자녀의 대인관계 유능성이 저하된다는 박인혜[36]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과도한 통제와 보호가 대학생들의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김경원[37]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성 간의 부적 영향을 나타낸다

는 장경문[38]과 마은애와 송은정[39]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 유능성과 관련이 있는 가족적 요인으로서 또 다른 변인인 가족건강성은 개인의 여러 가지 심리적 요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40]. 가족건강성은 가족 간의 긍정적 영향 또는 부정적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환경으로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41].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대화 기술, 의사결정과정과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가족체계를 잘 유지시킨다[42]. 또한 자녀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경험하며 자유롭고 유연한 가족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적응적인 생활방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한 대학생들은 다양한 대인관계 상황에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 가정에서의 가족관계 과정과 흡사하므로 심리적으로나 행동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43].

Olson, Russell과 Sprenkle[44]은 건강한 가족을 가족 체계이론을 도입하여, 가족의 응집력·적응력과 가족의 기능수행이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강한 가족이라고 정의하였으며[45], 여기에서 가족 응집력이란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이며, 가족 적응성이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규칙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46].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는 원가족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친구관계에서 좋은 대인관계 기술을 획득할 수 있으며[47],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들은 갈등상황에서도 이를 잘 조절하고 극복하며 함께 노력하는 것을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46]. 그러나 역기능적인 가족의 구성원들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48]. 이혜경[49]은 가족건강성은 가족원 간의 긴밀한 협력관계 및 일체감, 가족의 기능 등 가족의 유지와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가족 내에서의 이러한 상호작용은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지되어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연구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내적 요인에 관한 연구와 가족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개인내적 요인에는 정서표현[50], 자기효능감[51], 자아존중감[52], 자아분화[53], 의사소통능력[7][21][54] 등이 연구되었다. 다음으로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28][31][32][55], 부모의 양육태도[56-59], 부모화 경험[60][61], 부모-자녀관계[14], 부모와의 애착[62][63], 부모-자녀 의사소통[3][24][64], 가족 건강성[65][66] 등으로 연구가 되어졌다.

관계 형성의 주요 수단인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으로 지속과 발전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19]. 의사소통능력으로 형성된 타인과의 관계는 갈등 상황에 놓였을 때 해결하는 과정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결 하는지에 따라 더 향상될 수도 있다. 부모의 의도에 따라 자녀를 통제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부모의 보호와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므로[30] 갈등상황에 놓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양육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을 고려한다면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저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대화의 기술과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적합하게 가족체계를 잘 유지 시키는 가족 건강성은[42] 가족 구성원끼리 갈등상황에서 이를 잘 극복하는 학습의 기회를 자연스럽게 획득할 수 있으므로[46] 대인관계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대학생에게 중요한 발달과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족요인 등 변인에 대해 따로 분리되어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개인내적인 요인, 가족적 요인의 변인 관계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 중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을 분석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대

학생에게 대인관계 유능성의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 건강성과 대인 관계 유능성간의 관계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성별, 학년, 출생순위, 형제 수)을 통제 변수로하여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 건강성이 대인 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해당 대학을 방문하여 교수들에게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협조를 구하고 대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직접 배부·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018년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86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의 누락 등 불성실한 1부를 제외한 총 28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학년에서는 3학년이 가장 많았고, 형제 수는 2명이, 출생 순위는 둘째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에서는 전공의 특성상 여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1.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N=285)

특성	구분	N	%
학년	1학년	112	39.3
	2학년	97	34.0
	3학년이상	75	26.3
형제 수	1명	26	9.1
	2명	186	65.3
	3명 이상	68	22.5
출생 순위	첫째	128	44.9
	둘째	130	46.6
	셋째 이상	21	7.6

성별	남	11	3.9
	여	274	96.1
전공	유아교육학과	204	71.6
	아동학과	67	23.5
	기타	14	4.9

2. 변수 구성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2.1 대인관계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의 측정을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 와 Reis[13]가 개발한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한나리[15]가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판 대인관계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관계형성 및 개시' 8문항,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 대한 배려' 7문항, '갈등관리' 6문항, '자기개방' 3문항으로 총 31문항이다.

'관계 형성 및 개시'는 어떤 만남이나 모임을 먼저 제안하거나 참여하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능력으로 확대된 대인관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권리나 정서적으로 느낀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타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대방이 원할 때 지지를 해주는 것을 넘어 자기가 상대방을 높게 평가하고, 관심이 있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전체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갈등관리'는 타인과 관계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적절한 자기개방'은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해 주의 깊게 자신의 내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나리(2009)[1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전체가 .88 이었고,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63~.90 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관계형성 및 개시 .86,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80, 타인에 대한 배려 .79, 갈등관

리 .77, 적절한 자기개방.57 이었고 전체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 독립변수

2.2 의사소통능력

Fritz, Brown, Lunder와 Banset[68]이 개발한 도구를 최일선, 조은주[69]가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의사소통의 '집중도'(예: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 할 때 말한 것을 주의 깊게 듣는다' 등), '이해와 해석'(예: '나는 말하는 사람의 얼굴 표정, 자세, 비언어적 행동을 알아차린다' 등), '분석과 평가'(예: '나는 결정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고려한다' 등), '반응'(예: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이해했다는 것을 즉시 알게 한다' 등), '기억'(예: '나는 누군가가 내게 제공한 정보를 며칠 후에도 기억할 수 있다' 등)으로 5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 별로 5문항씩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집중 .78, 이해와 해석 .61, 분석과 평가 .69, 기억 .67였고 전체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2.3 모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이 지각한 모의 심리적 통제를 측정하기 위해 Barber[29]가 개발한 청소년용 부모 심리적 통제 설문지 16문항에 Olsen, Yang, Robinson[70]이 2문항을 추가하여 안명희[71]가 번안한 청소년용 부모의 심리적 통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8문항으로 3개 하위요인(각 6문항씩)으로 구성되어있다. 자녀의 언어표현을 제재하고 감정의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제재', 잦은 감정기복과 자녀에 대한 인신공격을 반영하는 '인신공격', 자녀의 잘못을 빌미로 애정철회와 죄책감을 주는 '애정철회'를 포함한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안명희(2010)[71]가 제시한 Cronbach's α 는 .86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모의 심리적 통제 Cronbach's α 는 표현제재 .84, 인신공격 .90, 애정철회 .76였고 전

체 Cronbach's α 는 .94이었다.

2.4 가족건강성

가족의 건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가족이 제시하는 건강한 가족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여 어은주와 유영주[72]가 제작한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가족원간의 유대'(예:우리 가족은 힘들어하는 가족원이 있을 때는 다른 가족원도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 10문항,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예: 우리 가족은 어떤 결정할 일이 있을 때에는 가족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등)은 9문항,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예: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등)은 6문항,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예: 우리 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등)는 9문항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어은주,유영주(1995)[72]의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Cronbach's α 는 .88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가족원 간의 유대 .93,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87, 가족의 문제해결수행능력 .85,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90였고 전체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3) 통제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대학생의 성별을 남자(0), 여자(1)로 구분하여 더미처리 하였다. 학년은 1학년, 2학년, 3학년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출생 순위는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구분하였으며, 형제 수는 1명, 2명, 3명 이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Cronbach's α 를 분석하였다. 대인관계 유능성과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

족 건강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성별, 학년, 출생순위, 형제 수)을 통제 변수로 하여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 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해석

1.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주요 변수의 평균을 살펴보면 의사소통 능력은 $M=3.08(SD=.35)$. 모의 심리적 통제는 $M=1.94(SD=.65)$, 가족건강성은 $M=2.85(SD=.54)$ 으로 의사소통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인 관계형성 및 개시는 $M=2.71(SD=.60)$,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은 $M=2.56(SD=.60)$, 타인에 대한 배려는 $M=3.05(SD=.46)$, 갈등관리는 $M=3.00(SD=.46)$, 적절한 자기개방은 $M=2.38(SD=.64)$ 으로 나타났으며 대인관계 유능성의 전체는 $M=2.78(SD=.41)$ 로 분석되었다.

표 2. 연구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연구변인	N	M	SD
의사소통능력	285	3.08	.35
모의 심리적 통제	284	1.94	.65
가족건강성	285	2.85	.54
관계형성 및 개시	285	2.71	.60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285	2.56	.60
대인관계 유능성	285	3.05	.46
타인에 대한 배려	285	3.00	.46
갈등관리	285	2.38	.64
적절한 자기개방	285	2.38	.64
전체	285	2.78	.41

2.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 건강성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및 가족건강성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 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r=.56$ $p<.001$)과

가족건강성과 대인관계 유능성($r=.32$, $p<.001$)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변인들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관계형성 및 개시와 의사소통능력($r=.41$, $p<.001$), 가족건강성($r=.29$, $p<.001$)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과 의사소통능력($r=.38$, $p<.001$), 가족건강성($r=.16$, $p<.01$)간에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의사소통능력($r=.55$, $p<.001$), 가족건강성($r=.30$, $p<.001$)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와 의사소통능력($r=.47$, $p<.001$), 가족건강성($r=.25$, $p<.001$)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갈등관리와 모 심리적 통제($r=-.18$ $p<.01$)간에는 부적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자기개방과 의사소통능력($r=.24$, $p<.001$), 가족건강성($r=.21$, $p<.001$)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상관관계

(N=285)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	전체
의사소통능력	.41***	.38***	.55***	.47***	.24***	.56***
모 심리적 통제	-.02	.04	-.06	-.18**	.02	-.04
가족건강성	.29***	.16**	.30***	.25***	.21***	.32***

3.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 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통제변수로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성별, 학년, 출생순위, 형제 수)을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와 가족건강성을 하였다. VIF계수와 Durbin-Watson계수를 살펴본 결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과 전체의 모델 1에서 VIF지수는 1.02~1.53, 모델 2에서는 1.03~1.53

으로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Durbin-Watson계수도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과 전체의 모델 1에서 1.87~2.17로 잔차 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의 요약된 결과는 [표 3][표 4]와 같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관계형성 및 개시에서 모델 1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로 투입된 4가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성별, 학년, 출생순위, 형제 수)은 관계형성 및 개시의 변량을 1%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R^2=.01$), 모델의 적합성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독립변수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 2는 관계형성 및 개시의 변량 중 20%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로 파악되었다($R^2=.20$, $F=9.43^{***}$, $p<.001^{***}$). 모델 2에 추가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은 관계형성 및 개시를 19%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R^2 . Change=.19^{***}). 개별변수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의사소통능력($\beta =.35^{***}$)가족건강성($\beta =.16^*$)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능력과 가족건강성이 높아질수록 관계형성 및 개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에서 모델 1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는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의 변량을 1%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R^2=.01$), 모델의 적합성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독립변수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 2는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의 변량 중 16%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로 파악되었다($R^2=.16$, $F=7.56^{***}$, $p<.001^{***}$). 모델 2에 추가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은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을 15%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R^2 . Change=.15^{***}). 개별변수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의사소통능력($\beta =.39^{***}$)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질수록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타인에 대한 배려에

서 모델 1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변량을 3%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R^2=.03$), 모델의 적합성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독립변수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 2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변량 중 32%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로 파악되었다($R^2=.32$ $F=17.83^{***}$, $p<.001^{***}$). 모델 2에 추가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은 타인에 대한 배려를 29%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R^2 . Change=.29^{***}). 개별변수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의사소통능력($\beta =.50^{***}$)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질수록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갈등관리에서 모델 1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는 갈등관리의 변량을 1%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R^2=.01$), 모델의 적합성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독립변수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 2는 갈등관리의 변량 중 23%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로 파악되었다($R^2=.23$, $F=11.20^{***}$, $p<.001^{***}$). 모델 2에 추가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은 갈등관리를 22%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R^2 . Change=.22^{***}). 개별변수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의사소통능력($\beta =.44^{**}$)의 정적 영향을 모의 심리적 통제($\beta =-.12^{**}$)는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능력이 높아질수록, 모의 심리적 통제가 낮아질수록 갈등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적절한 자기개방에서 모델 1을 살펴보면, 통제변수는 적절한 자기개방의 변량을 2%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R^2=.02$), 모델의 적합성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독립변수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 2는 적절한 자기개방의 변량 중 9%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로 파악되었다($R^2=.09$ $F=3.79^{***}$, $p<.001^{***}$). 모델 2에 추가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은 적절한 자기개방을 7%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R^2 . Change=.07^{***}). 개별변수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의사소통능력($\beta = .50^{***}$)과 가족건강성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능력과 가족건강성이 높아질수록 적절한 자기개방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에서 모델 1을 살펴보면, 통제 변수는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를 1%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R^2=.01$), 모델의 적합성은 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는 모델 1에 독립변수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델 2는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를 33%를 설명하는 유의미한 모델로 파악되었다($R^2=.33$, $F=18.76^{***}$, $p<.001^{***}$). 모델 2에 추가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은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를 32% 추가적으로 설명하였다(R^2 . Change=.32^{***}). 개별변수의 영향력이 있어서는 의사소통능력($\beta = .50^{***}$)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소통

능력이 높아질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가족건강성, 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만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모두 즉,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건강성은 관계형성 및 개시와 적절한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심리적 통제는 갈등관리만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1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03	.01	.04	.01	.21	.07	.19	.06	.18	.08	.17	.07
학년	-.07	-.09	-.06	-.08	-.02	-.03	-.02	-.03	-.03	-.05	-.03	-.05
출생순위	-.02	-.02	.02	.02	-.03	-.03	.00	-.01	.02	.02	.04	.06
형제 수	-.03	-.03	-.06	-.06	.00	.00	-.03	-.03	.10	.13	.06	.08
의사소통능력			.61	.35 ^{***}			.68	.39 ^{***}			.67	.50 ^{***}
모의 심리적 통제			.08	.09			.08	.09			.04	.05
가족건강성			.18	.16 [*]			-.02	.02			.07	.09
R ²	.01		.20		.01		.16		.03		.32	
Adj R ²	-.01		.18		-.01		.14		.01		.30	
F	.67		9.43 ^{***}		.46		7.56 ^{***}		1.77		17.83 ^{***}	

표 5.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와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2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모델 1		모델 2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성별	.00	.00	.01	.01	.28	.09	.29	.09	.12	.06	.12	.06
학년	.01	.02	.01	.01	-.04	-.05	-.03	-.03	-.03	-.06	-.03	-.06
출생순위	.02	.02	.03	.04	-.09	-.09	-.06	-.06	-.02	-.02	.01	.02
형제 수	.06	.08	.03	.03	.04	.03	.02	.02	.03	.05	.00	.00
의사소통능력			.58	.44 ^{***}			.32	.17 ^{**}			.60	.52 ^{***}
모의 심리적 통제			-.08	-.12 [*]			.10	.10			.04	.07
가족건강성			.00	.00			.19	.12 [*]			.09	.12
R ²	.01		.23		.02		.09		.01		.33	
Adj R ²	-.01		.21		.00		.07		-.01		.31	
F	.59		11.20 ^{***}		1.19		3.79 ^{***}		.58		18.76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와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성별, 학년, 출생순위, 형제 수)를 통제하고, 독립변수로 의사소통능력, 모의 심리적 통제와 가족건강성을 설정하여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의사소통능력, 가족건강성과 대인관계 유능성 간에 모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7][21]결과와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은 타인과 효과적인 관계를 형성, 유지, 관리하는 능력인 대인관계 유능성에 가장 관련이 있는 변인이라는 연구[54][55][74]와 일치한다. 또한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하는 가족 응집성은 대인관계와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74][75] 연구와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능성과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46]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의사소통능력과 가족건강성은 대인관계 유능성의 향상과 관련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 유능성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시기는 부모의 간섭이나 통제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시기라는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들과 의사소통능력, 가족건강성, 모의 심리적 통제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관계 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은 의사소통능력과 가족건강성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관리와 모의 심리적 통제 간에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갈등관리와 모의 심리적 통제 간에 부적상관이 나타난 결과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갈등관리와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28]와 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 문제와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31][32]를 지지한다. 또한 대학생들이 직면하는 대인관계 문제는 개인의 성격형성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심리적 독립과 관계가 있다는 주은선, 현수경[76]과도 맥을 같이한다.

둘째,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가족건강성, 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에서,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 전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과 활발한 의사표현을 할 때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대인관계 유능성이 높다는 문새롬[54]의 연구결과와 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뛰어나며,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7][77],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와도 영향이 있다는 연구[73][78]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이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를 원만히 발전시킬 수 있다는 유철수[69], 주지선[73]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대인관계를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 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관계형성 및 개시,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 타인에 대한 배려, 갈등관리, 적절한 자기개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관계 형성 및 개시를 잘한다는 결과는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관계가 발전한다는 황유선과 김주환[79]의 연구결과와 의사소통능력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관계를 원만하고 친근하게 해주기 때문에 관계가 유지된다는 연구[80]의 주장을 지지했다. 즉,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권리나 불쾌감에 대한 주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표현 할 줄 아는 의사소통능력의 특성[21][54]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갈등관리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의사소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81], 자신의 의사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문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한다는 연구[82]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상대방과 이야기 할 때 주의 깊게 듣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의사소통능력은 타인을 배려하며, 갈등을 줄이고 상황을 해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이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적절한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원만하게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결과[7][20][21]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모의 심리적 통제는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갈등관리에만 유의하게 부적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타인과 관계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 갈등관리는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은 경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32],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갈등을 유발하여 대인관계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정진희의 연구[31]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과보호적 양육행동을 지각할수록 대인관계갈등이 심화되었다는 박은미[82]의 연구와도 일맥상통한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표현 불능주의 영향으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등학교의 대인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한은진[32]의 연구결과와 대학생들의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유지수[58]의 연구결과와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모의 심리적 통제와 대인관계 유능성을 살펴본 연구는 어머니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2], 부모의 양육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58][82][83] 등으로 연구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의 심리적 통제가 높으면 타인과 관계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갈등을 유발하여 대인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가족건강성은 대인관계 유능성의 하위변인 중 관계형성 및 개시와 적절한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쳤다.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관계형성 및 개시를 잘한다는 연구결과는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인관계에 유리한 영향을 준다는 채유경[74], 김미혜[75], 안성제[85]의 연구결과와 가족 적응성 수준이 높은 가족일수록 대인관계는 긍정적이라는 최희량[85]의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된다.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적절한 자기개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가족원이 친밀하고 소통이 원활하며 가족 간 관계가 좋을수록 사회적 유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86]와 청소년의 사회지능은 가정환경의 건강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한순미[87]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는 건강한 가족 안에서 가족원 간의 친밀한 정서적 유대와 소통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양한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건강성과 대인관계 유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하며, 대부분의 연구 가족 관련 변인으로 가족 분화, 가족체계, 가족관계와 대인관계에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개인이 가족 외 사람들에게 취하는 행동양식은 가족 내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된 대인관계의 연장이거나 반동 혹은 보상으로 나타나므로[88], 개인의 대인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개인내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가족건강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즉, 자신의 정서를 명확히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표현능력이 뛰어난 의사소통능력은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54]. 또한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경험이 나아가 대인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같은 방식으로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협력관계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가족의 가족건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인과의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개인내적인 요인과 가족적 요인의 특성을 이해함과 동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즉, 대인관계 유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인 내적 요인과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에 심리적, 행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족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함께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유능성을 증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이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실제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인관계 상황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대인관계 유능성 향상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논의 및 결과를 토대로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전공에 있어 유아교육 학생이 다수였으며, 유아교육전공 특성 상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편증된 표본을 이루었으며, 경기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여 대학생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에 대해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표집단위, 표집지역의 확대를 통해 표집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에게 학교생활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대인관계 유능성이 매우 중요한 과업에도 불구하고 대인관계 유능성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연구는 개인내적 요인을 많이 다루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대인관계를 비롯한 가족적 요인 뿐 아니라 이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 등 다른 변인과의 관계 연구가 미흡한 실정으로 추후에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임정하, 조은영, 오연경, 윤원영, “대학생의 감사성향과 인지적 유연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제27권, 제2호, pp.93-120, 2016.
 [2] 김혜진, *대학생의 자아탄력성, 어머니와의 심리적 분리정도*와 대인관계유능성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3] 권희정, *대학생의 완벽성향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4] <http://www.20slab.org>, 2019.01.02.
 [5] 권석만,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9.
 [6] M. Schaller and R. B. Cialdini, *Happiness, Sadness and Motivational Integra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 (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New York : Guilford, pp.265-29, 1990.
 [7] 서정연,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분노표현방식의 매개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8] 김나미, 김신섭,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pp.1125-1144, 2013.
 [9] A. Pincus and J. S. Wiggins, “Interpersonal problems and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Vol.4, pp.342-352, 1990.
 [10] 배미정, 조한익, “내현적 자기에 성향, 자존감,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련성 연구,” 상담학 연구, 제15권, 제6호, pp.2417-2435, 2014.
 [11] 조운주, 박장희, “대학생의 개체화 유형과 대인관계 문제에 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제12권, 제3호, pp.89-108, 2006.
 [12] B. H. Spitzberg and W. R. Cupach, *Handbook of Interpersonal Competence Research*, New York : Springer-Verlag, 1989.
 [13] D. Buhrmester, W. Furman, M. T. Wittenberg, and H. T. Reis, “Five Domain of Interpersonal Competence in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5, No.6, pp.991-1008, 1988.
 [14] 이지선,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5] 한나리, *한국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과 갈 등 상황에서*의 인지 및 행동 반응,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6] D. K. Lapsley and J. Edgerton, "Separation-Individuation, Adult Attachment Style, and College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80, No.4, pp.484-493, 2002.
- [17] 정미영, "대학생의 사군자 기질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능력의 차이,"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pp.385-395, 2017.
- [18] 박동영, 정경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문화간 의사소통능력이 문화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1호, pp.337-346, 20114.
- [19] H. J. Clinebell and C. H. Clinebell, *The Initiate Marriage*, New York: Harper Row Publishers, 1970.
- [20] 권진희, "정서인식의 명확성과 정서표현성 및 대인관계문제제외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제4권, 제1호, pp.37-49, 2011.
- [21] 배순원,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22] 김현숙, 강선모, "내현적 자기애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7권, 제1호, pp.157-176, 2013.
- [23] S. R. Wilson and C. M. Sabee, Explicating communicative competence as a theoretical term. In J. O. Greene & B. R. Bureson (Eds.), *Handbook of communication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p.3-50, 2003.
- [24] 김반야, *관계적 인간형성: 부모 자녀 의사소통이 자녀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25] N. L. Collins and S. J. Read,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8, pp.644-663, 1990.
- [26] 강희경, "가족의 건강성과 학령기 아동의 자아 탄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제3호, pp.93-102, 2005.
- [27] 박영신, "청소년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부모통제와 심리적 증상," *한국심리학회지*, 제23권, 제1호, pp.51-65, 2010.
- [28] 윤은영, 이지연,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제42권, 제3호, pp.191-213, 2016.
- [29] B. K. Barbe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67, No.6, pp.3296-3319, 1996.
- [30] B. Barber and E. Harmon,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1552, 2002.
- [31] 정진희,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등학생 자녀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32] 한은진,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고등학생 자녀의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감정표현불능주의 매개효과*,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33] 이창배, 전혜성, "대학생의 가족분화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담학연구*, 제16권, 제6호, pp.465-483, 2015.
- [34] 류아영, 유순화, 윤경미,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의 매개효과," *열린교육연구*, 제22권, 제3호, pp.135-155, 2014.
- [35] 한아름, 김정민, 강슬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지*, 제27권, 제2호, pp.103-115, 2018.
- [36] 박인혜,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불안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불안정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37] 김경원, *대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 역기능적 신념과 불안 통제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38] 장경문,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통제와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특성에 따른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적의 차이," *초등교육연구*, 제20권, 제1호, pp.165-179, 2007.

- [39] 마은애, 송은정, “어머니의 심리적통제가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욕구 좌절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5권, 제5호, pp.2035-2051, 2013.
- [40] 김종운, 김미정, “대학생의 가족건강성, 사회적지지, 희망 및 행복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 상담연구, 제25권, 제2호, pp.93-122, 2017.
- [41] 한명숙, *유아의 배려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관련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가족건강성, 모자상호작용,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42] 유영주, “긴전가정과 건강가족의 개념설정에 대한 논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7권, 제3호, pp.98-102, 1999.
- [43] 주현정,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유능성의 매개효과*,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44] D. H. Olson, C. S. Russell, and D. H. Sprenkle, “Circumplex model :System icassessment and treatment of families,” New York: Haworth, 1988.
- [45] 이경은, “가족자원봉사경험과 가족의 건강성이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Korean Journal of Welfare), 제52권, pp.63-87, 2003.
- [46] 오은정, *가족관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47] J. Koesten, “Family Communication Patterns, Sex of Subjec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Communication Monographs, Vol.71, No.2, pp.226-244, 2004.
- [48] 최연실, *청소년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 [49] 이혜경,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50] 정경아, *정서표현 양가성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51] 김종운, 양민정, “대학생의 애착과 자기효능감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pp.1-18, 2014.
- [52] 이민선,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53] 김경진, *대학생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 무조건 자기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54] 문새롬,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의 매개효과*,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55] 박금란, *부모의 자율성지지, 심리적통제가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만족과 자기정체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56] 박승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57] 박인혜, *부모의 역기능적인 양육태도가 불안과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초기 부적응 도식과 불안정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58] 유지수,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59] 현지윤,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정서표현 및 대인관계 유능성의 구조관계 분석*,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60] 문비, *부모와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61] 서수라, *성장기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 만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 [62] 오지혜, 윤혜미, “부모와의 애착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1-12, 2017.
- [63] 박상희, 이남옥,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가족과상담, 제4권, 제1호, pp.1-18, 2014.
- [64] 강윤경,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65] 안영자,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분화가 자기행동 및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66] 이지민 “가족상담: 가족건강성, 자아분화, 대인관계와 대학생의 우울 간의 관계구조,” 상담학연구, 제11권, 제3호, pp.1271-1287, 2010.

- [67] 한나리, 이동귀, “대인관계유능성 질문지 한국판이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22권, 제1호, pp.137-156, 2010.
- [68] S. Fritz, F. W. Brown, S. P. Lunder, and E. A. Banset, *Interpersonal Skill for leadership*, NJ: Printice Hall, 2005.
- [69] 최일선, 조운주, *유아교육평가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2010.
- [70] S. F. Olsen, C. Yang, H. H. Craig, C. C. Robinson, W. Peixia, D. Nelson, J. Nelson, S. H. Jin, and J. Wo,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al Outcomes in china,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in Baber, B, (ed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 [71] 안명희,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초기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2호, pp.227-253, 2012.
- [72] 어은주, 유영주,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3권, 제1호, pp.145-156, 1995.
- [73] 주지선, *의사소통 훈련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74] 채유경,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간의 관계,” 청소년 상담연구, 제12권, 제2호, pp.136-144, 2004.
- [75] 김미혜, *대학생의 가족체계,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간의 관계*, 호서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4.
- [76] 주은선, 현수경, “대학생들의 인간관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수업모형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인간관계심리학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제21권, pp.23-41, 2005.
- [77] 유철수, *의사소통훈련이 전문대학생의 대인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효과*,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78] 최은혜, “사립유치원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의사소통능력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1권, 제2호, pp.39-57, 2015.
- [79] 황유선, 김주한,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휴대전화 사용과 대인관계 유지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제9권, 제3호, pp.687-719, 2009.
- [80] 이현석, 최은희, 황미영,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갈등해소양식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제16권, 제2호, pp.1-22, 2009.
- [81] 심혜숙, 왕정희,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 및 대인문제해결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3권, 제1호, pp.163-175, 2001.
- [82] 박은미,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83] 이도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영향: 성차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84] 안성저, *아동이 지각한 가족응집력 및 적응성과 대인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85] 최희량,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문제성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97.
- [86] 이철수,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외모만족감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제29권, 제2호, pp.25-48, 2015.
- [87] 한순미, *가정환경의 건강성이 청소년의 정서지능, 사회지능 및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88] 이문행, *가족기능성이 자녀의 대인관계 성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저 자 소 개

구 현 주(Hyun-Joo Koo)

정회원



- 2011년 8월 : 숭실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18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생활문화학과 아동가족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 부모자녀관계, 부모교육, 의사소통

문 혁 준(Hyuk-Jun Moon)

정회원



- 1997년 : Michigan State University
Ph. D.
- 현재 :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관심분야〉 : 부모자녀관계, 보육정책, 아동발달